

## 自由베를린大學의 과거와 현재

韓 逸 燮(西江大 獨語獨文學科)

### 독일 대학의 공통된 特性

이 글의 課題는 '自由베를린大學(Freie Universität Berlin)'을 소개하는 것에 있는데 이 대학 자체만을 다루기 이전에 우선 獨逸(이 글에서 '獨逸'은 '共產東獨'을 제외한 뜻으로 씀)의 모든 대학이 지니는 3가지 공통된 特性을 알리고자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自由베를린大學을 제대로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 대학의 3가지 공통된 특징의 하나는 入學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즉 각 대학은 모든 志願者가 入學資格證만 갖고 있으면 입학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13년간의 初·中等教育課程을 결산하는 김나지움(Gymnasium)의 졸업시험이 되는 아비투어(Abitur) 合格證이 곧 입학자격증이 된다. 일종의 國家試驗이 되는 이 아비투어에 합격한 자는 독일의 어떤 대학에도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아비투어는 시험 결과를 成績으로 표시하고 합격권내의 성적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성적은 합격권에 속하는 이상 대학 입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단, 收容人員에 제한을 받는 人氣專攻分野, 예컨대 醫學, 藥學, 建築學 분야 등을 지원 하는 자는 아비투어 성적에 따른 입학 先後順位를 부여받고 即時 入學하든가 아니면 한두 학기 후에 입학하든가 한다. 이렇게 대학 선택과 입학이 자유롭다는 것으로 독일의 대학 入學制度는

아마도 입학 지원자에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편하고 이로울 것이다.

독일 대학의 둘째 공통점은 모두가 國立大學이라는 것에 있다. 豫算額 중 대학이 자체 所得(附屬病院 등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 일체를 國庫가 맡는다. 국가는 大學教育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다. 그 原因 중 하나는 대학의 등록금이 없다는 데 있다. 모든 학생이 무료로 대학을 다닌다. 이로 인해서 外國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近年에 와서 韓國 유학생이 격증하고 있다. 원래 독일은 세계에서 教育投資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한다. 1976년에 國防豫算이 GNP의 2.9%였는데도 教育豫算은 GNP의 5.3%였다. 독일 대학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財政支援을 받는데 그래도 대학의 제반 施策이 官의 간섭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 「大學法」이 대학의 自律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독자적인 自治機構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 自治制로 인해서 오늘날 독일 대학은 學事, 講義, 研究 등에 있어서 최대의 自由를 향유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독일 대학의 마지막 공통점은 각 대학간의 教授資質의 평형이다. 각 전공분야의 專任教授는 통상 正教授인데 정교수는 다년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엄선된 우수한 大學教員이다. 博士學位를 획득하고 學術助敎 등의 研修 경력을 쌓은 후에 '교수자격시험(Habilitation)'에 합격하고 그 다



◀ 신관건물 전경

음에 특정대학에 專任敎員으로 초빙되는 것 등이 정교수가 되는 통상의 길이다. 대학마다 이렇게 우수한 교원을 전임교수로 쓰는 까닭으로 대학간의 교수 평균 실력 수준의 격차는 있을 수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독일 대학의 3가지 공통적인 특성은 독일 대학에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또 하나의 특징을 가져왔다. 또 다른 특징이란 독일의 어떤 대학도 名門 또는 非名門, 一流 또는 二流의 호칭을 받지 않고 또 받을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자격 지원자에 대학 선택과 입학의 自由, 수준급 이상의 교수 확보, 국가 투자로 인한 施設의 良好 등이 독일의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까닭에 대학을 一流니 二流니 하며 차등 구별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 自由베를린大學의 탄생

自由베를린大學은 베를린分斷 非運의 產物이다. 예전에 베를린에는 '프리드리히 빌헬름大學校'를 正式 명칭으로 하는 '베를린大學'이 있었는데 이 대학은 135년 동안 존속해 오다가 1944년 나치政權에 의해 문을 닫았다. 이 베를린大學은 1946년에 '훔볼트大學'으로 改名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런데 학교가 東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 소련軍政의 영향하에 있었다. 소련軍政은 大學施策에 적극 간여했고, 그로 인해서 1948년 봄에 同大學의 몇몇 학생이 제적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제적 사건은 슬한 大學人을 분격시켰고, 일련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것에 대한 抗議示威를 했다. 그 후 시위 학생들과 교수들은 힘을 합쳐서 당시 베를린 市長 에른스트 로이터의 지원하에 1948년 12월 西베를린의 美軍占領區域에 새 大學校를 창설했다. 그것이 自由베를린大學의 탄생이었다.

출발시 自由베를린大學은 옛 '베를린大學'의 承繼者가 될 것을 속으로 다짐하고, 그 창설자 빌헬름 폰 훔볼트의 대학교육 理念에 따른 과제 즉 '學問生活의 自律的 伸張'을 밖으로 천명했다. 초기의 自由베를린大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大戰으로 거의 전면 파괴된 도시에서 대학다운 대학이 단숨에 생길 수 없었다. 우선 학생을 수용할 강의실이나 실험실이 부족했고, 교수도 인원이 적었다. 그래서 입학 지원자를 많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시설 확장을 할 수 있었다. 자계로부터 獻금이 들어왔고, 특히 美國 포드財團이 巨額을 회사했고, 그런 寄附금이 초기의 시

설 확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61년에는 대학이 의외의 사건으로 혼란을 겪었다. 東西베를린 경계에 東獨이 '베를린障壁'을 만들고 양쪽간의 自由往來를 차단시켰고, 그 결과 東베를린 거주 自由베를린大學 학생들이 그곳으로부터의 통학이 불가능해졌다. 그런 학생의 수가 전체 在學生의 半數 가량을 차지했는데 졸지에 그들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西베를린에 머물러 있든지 혹은 학교를 포기하든지의 兩者擇一을 해야 했다. '베를린障壁'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東베를린에서 오는 입학생은 없어졌지만, 반면에 西獨(독일 地理에선 '西베를린'은 '西獨'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를 구별하지 않는 수가 있다)에서 오는 新入生의 수가 차츰 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오늘까지 해마다 학생수가 급증했다. 그것에 상응되게 그 동안 대폭적인 시설 확장과 교수 증원이 있었고, 그런 성장 끝에 이 대학이 오늘날 독일에서 '뮌헨大學'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綜合大學이 되었다.

### 학생수의 增加 추세와 그 원인

西베를린은 東獨에 에워싸인 '섬(島)'이고 종종 '죽은 都市'라 일컬어진다. 西獨과의 거리가 멀어서 陸路로는 기차든 자동차든 6시간 이상 달려야 東獨 땅을 벗어난다. 따라서 西베를린은 서독을 왕래하기가 불편하고, 또 동독 공산주의자

▼ 특히 醫學, 化學, 物理, 氣象學 등의 연구소는 새로운 장비와 큰 규모로 유명하다



들이 갑자기 짐거하려 할 때에는 서독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主要因이 돼서 한편으로는 서독 住民이 이곳에 이주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 市民 중 안전한 미래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면 서독으로 빠져 나간다. 그런 까닭에 서베를린 人口가 해마다 줄어든다. 서베를린 인구는 1970년에 2백만 가량이었는데 1984년에는 1백 80만으로 그 세 2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市民의 수가 그렇게 줄어드는 동안에 自由베를린大學의 학생수는 반대로 계속 증가하여 3.5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총 학생수가 1970년에 1만 5천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5만 2천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독을 원래 거주지로 하는 학생들이 그 동안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自由베를린大學에 많이 입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9년에 이 대학의 반수를 넘는 학생, 즉 51.8%의 학생이 서독에서 왔고, 45.8%의 학생만이 베를린 출신이었다.

自由베를린大學의 학생수가 그렇게 증가한 原因은 外的인 것과 內的인 것으로 나뉘 볼 수 있다. 外적인 원인으로서는 다시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 동안 독일 대학 입학 지원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했다는 것에 있다. 독일의 총학생수가 1976년에 84만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98만으로 늘어났다. 또 다른 외적 원인은 소극적인 것이 되는데 그것은 西베를린의 지역적 고립성이 대학생에게는 별로 장애 요소

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반 사회인과는 달리 대학생은 財産管理 등의 문제가 없고, 서독을 빈번히 왕래할 일이 없고, 소박한 政治觀으로 동독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 밖에 대학 修學期間은 그렇게 긴 연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서독에서 오는 학생에게는 베를린에 永住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 대학생에게는 지역적 고립성의 여건이 自由베를린大學 志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로 영

향을 쓸 수 없다.

內的 원인이란 학생들의 입학 지원을 유발할 수 있는 自由베를린大學의 장점을 일컫는데 이에는 3가지 정도가 있다.

그 첫째는 自由베를린大學이 학생들에게 최대의 自由와 權利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선 아다도 독일의 어느 대학도 이 대학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自由베를린大學은 학생이 다음에 할 수 있는 學生天國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을 중시하는 학생이나 政治意識이 강한 학생들이 이 대학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自由베를린大學의 학생들이 '男女同一層寄宿'을 맨 먼저 시작하고 또 보편화시켰다. 예전에는 대학생 기숙사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 자기 다른 건물에 있게 하거나 혹은 동일 건물 안에 있더라도 남녀를 자기 다른 층에 있게 했는데 그들은 이 제도를 없애고 동일 건물의 동일층에 남자가 함께 기숙하는 것을 맨 먼저 했다는 얘기가. 이 新式 기숙사에서 는 벽을 사이에 두고 남녀학생이 이웃이 되고 화장실이나 샤워장도 함께 사용한다. 이런 것이 벌써 自由베를린大學 학생들의 自由生活 경향을 보여 준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것이 생겨나게 하는데 또한 어떤 前衛의 정치의식이 함께 작용했다.

내적인 원인 둘째는 自由베를린大學이 독일에서 最多數의 專攻分野를 제공하고 있고, 또 최다수의 학생을 수용할 시설을 갖춘 '綜合大學'에 속한다는 데 있다. 中小規模의 대학들이 할 수 없는 전공분야까지 갖고 있어서 그런 분야를 공부하려는 학생을 위해서는 自由베를린大學이 志望校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대학은 다른 (中小)大學들 보다 더 많은 학생을 받게 된다. 독일의 전통적인 '綜合大學校(Universität)'는 원래 工科系를 갖지 않는다. '工科大學(Technisch Hochschule)'은 따로 독립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 인구의 전반적인 증가로 工科大學도 확대되어서 '종합대학교'의 규모로 확장되어 이른바 '工科大學校(Technische Universität)'가 몇 개 생겨났다. 西베를린에 예전의 공과대가 확대된 '베를린工科大學校'가 있다. 自由베를린大學은 공과계가 없는 독일의 전통 '종합대학교'이고, 이런 학교로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전공분야를

갖는 대학에 속한다. 이 대학이 제공하는 전공 분야 大單位는 다음과 같다.

獨語獨文學, 英語英文學, 佛語佛文學, 네델란드語文學, 그리이스語文學, 러시아語文學, 스페인語文學, 포르투갈語文學, 생語文學, 라틴語文學, 中世라틴語文學

슬라브學, 스칸디나비아學, 발칸學, 유대學, 에집트學, 古代近東學, 아랍學, 비잔틴學, 아메리카學, 古代東洋學, 中國學, 日本學, 一般文學 및 比較文學, 比較言語學 및 인도게르만語學 歷史, 太古 및 初期歷史, 東유럽 및 東南유럽 歷史, 古考學, 人種學, 藝術史, 印度藝術史 哲學

社會學, 社會生活

新聞放送學, 情報 및 文藝學

圖書館學, 司書教育

演劇學

音樂學, 比較音樂

政治學

法學, 法生活

經濟學, 經濟生活, 經濟教育學

經營學, 會計學

宗教學, 新教神學, 카톨릭神學, 回教學

心理學

教育學, 成人教育, 學校教育, 特殊教育, 社會教育, 스포츠 및 體育

地理學, 地質學, 地球物理學

數學, 物理學, 化學, 生化學, 生物學, 鑛物學

氣象學, 電算學

藥學

醫學, 齒醫學, 獸醫學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醫學, 齒醫學, 獸醫學, 生化學, 生物學, 藥學, 心理學, 建築學 등의 분야에는 입학 지원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수에 달하고 있어서 입학을 제한한다(이들 분야는 입학 제한 시작 年度가 자기 다른데 醫學이 맨 먼저 그러했고 제한이 가장 심하다). 이 입학 제한 분야 지원자들에 대해선 中央大學入學生配定所가 조정하여 그들을 順位에 따라 각 대학의 해당 분야에 자리가 꼭 찰 정도로 배정한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最大施設을 갖고 있는 自由베를린大學이 이 입학 제한 분야의 지원학생을 最多

數 배정 받은 것으로 된다. 그래서 1984년엔 이 대학의 醫學專攻의 학생단도 6천 명이 되었다.

自由베를린大學의 학생수가 증가하는 內的 원인 세계는 연구원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研究所가 많다는 것에 있다. 특히 醫學, 化學, 物理, 氣象學 등의 연구소는 새로운 裝備와 큰 規模로 유명하다. 人文科學 분야의 연구소로는 政治學, 法學, 社會學, 心理學, 哲學 등의 것이 유명하다. 근년에 와서 독일의 失業者數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저조하다. 이런 취업난의 시기에 대학 소속 제반 연구소는 자기네 졸업생을 다소라도 잠정적으로 구제하는 곳이 된다. 즉, 졸업생은 밖에 알맞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연구소에 고용돼 보수도 받고 경력을 쌓는다. 그리고 미개 博士學位 과정에 있는 학생은 벌써 연구원 자격을 가져, 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生計費를 번다. 연구소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규모 큰 연구소를 많이 가진 自由베를린大學이 다른 (中小)대학보다 더 많은 학생을 끌어들이 수 있다.

自由베를린大學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1984년 한 해의 豫算이 11억 데마르크(약 3천 9백억 원)나 된다는 것에서도 능히 알 수 있다. 同年에 대학의 종사인원은 교수 959명, 연구원 2,343명, 기타 종업원 9,452명이다. 총학생수(5만 2천 명)는 이미 언급했지만 주목할 것은 女學生이 그 중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어느 대학에 비해 매우 많은 수가 된다. 외국 유학생이 약 4천 명으로서 독일 最多數라고 여겨진다. 圖書館은 1983년 예산이 1천 2백 데마르크(약 43억 원)이고 종보유책은 650만 권, 정기간행물은 8,310종이다.

### 혁신적인 自治制度

自由베를린大學은 한때 그 存立이 위태로웠던 大危機에 처했다. 1968년을 頂點으로 하는 이른바 '유럽學生運動'의 시기가

그때였다. 自由베를린大學의 학생들이 독일에서 그것의 효시가 되고 중심이 됐다. 한동안 학교 거의 전체가 기능을 상실했다.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서 수업 시작하러던 몇몇 학생이 차례로 일어나서 수업과 무관한 문제들을 거들며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하자고 우긴다. 또 강의 도중에 갑자기 여러 명의 학생이 뛰어들어 와서 수업을 중단하고 '最優先問題'를 토의하자고 떠든다. 그리하여 수많은 강의가 중단되고 또 휴강됐다. 어떤 학생들은 圖書室을 점거하고 거기서起居했다. 극렬학생들은 총장 官邸에 폭약을 던졌고, 교수들에게 전화로 대학을 떠나라고 협박했다. 학생들이 붉은 旗와 毛澤東 초상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갔다.

한편 교수들은 처음엔 당하기만 하고 또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는 들고 일어났다. 상당수의 교수들이 '教授非常協議會'를 결성하고 敎權 옹호를 부르짖고 학교 질서를 파괴하는 학생소요를 규탄했다. 그들은 서베를린 市內 북관으로 나가 市民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다른 교수들은 서베를린을 떠날 기회를 찾았고, 그 결과 실제로 西獨의 대학에 자리를 옮긴 교수가 있고, 심지어 외국 대학에 자리를 찾아간 교수도 있다. 연구심이 많은 교수일수록 학교를 옮기려고 했다. 自由베를린大學은 공부와 研究를 버리고 스승과 제자간의 戰場

▼ 교내의 모든 신분층의 사람들이 학교의 일을 결정하는 데 동참하는 自治制度는 커다란 특성 중의 하나이다



으로 변했다.

당시의 學生示威의 구호에 따르면 쟁점으로 삼는 문제거리는 국내의 政治問題로부터 베트남戰爭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유럽 또는 獨逸의 既存社會가 오랫동안 존속시켜 온 온갖 權威를 무너뜨리는 데 근본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내에 있는 權威主義에 맨먼저 도전했다. 그것은 교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독일 대학은 전통적으로 제반 學科가 개개의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서 대학사회에서의 교수의 권위란 절대적인 것이었다. 개개의 교수의 권한이 막강했다. 교수가 잘못 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 졸업을 할 수 없고, 博士도 될 수 없었다. 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장학금을 받고, 또 취직도 할 수 있었다. 한 교수가 다른 대학으로 옮기면 그의 助教와 그의 지도를 받는 學位課程 학생 등 수많은 인원이 함께 그 대학으로 옮겨야 했다. 독일 대학은 교수개개인이 운영하는 '講堂'의 집합체와 같았다.

그런데 혼란과 싸움이 한두 학기 지속된 후 교수들과 학생들간에 對話가 시작되고 양자가 함께 문제 사항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새로운 自治制度의 대학을 만드는 데 합의를 보고, 1969년 그것에 따라 새 정관을 만들었다. 이 새 제도는 1970년에 自由베를린大學에 독일 大學史上 초유의 일을 낳게 했다. 그것은 助教로 있던 새파란 靑年이 7년 임기의 總長 자리에 오른 일이다. 교수는 부총장이 됐다.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969년에 도입한 自由베를린大學의 自治制度는 당시로서는 다른 곳에선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자치제도는 오늘까지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특성은 그 기구에서 알 수 있다. 自治機構는 상이한 임무를 갖는 여러 개의 '委員會'를 갖고 있으며 그 위원회들이 學事, 計劃, 豫算, 人事 등의 학교 제반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각 위원회의 人員構成이다. 학교의 모든 身分層, 즉 教授, 研究員(助教 포함), 學生, 기타 職員이 위원회의 委員이 된다. 그러니까 학교를 구

성하는 모든 층의 사람들이 학교의 일을 토의 결정하는 데 동참하게 한다는 것에 이 自治制度의 특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새 制度는 분명 예전의 제도, 즉 교수들에게만 학교의 일들을 결정할 권한을 주었던 제도와 정반대가 된다. 달리 말해서 새 제도는 교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새 自治制度도 대학에서의 교수의 권한과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있다. 각 委員會의 각 신분층의 人員 비율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교수의 委員數가 각 다른 층의 위원수보다 많다. 예컨대 주요한 위원회가 되는 '專攻領域評議會'는 교수 6명, 연구원 2명, 학생 2명 기타 직원 1명으로 되어 있어 교수의 수는 나머지 3개 신분층의 인원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表決에 있어서 교수들이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專攻領域(Fachbereich)'이란 우리의 '學科' 또는 '系列'과 흡사한 개념이고 이의 도입과 함께 종래의 학과와 학부를 없앴다. 어쨌든 새 自治制度는 교수의 권한을 대폭 제한은 했어도 그래도 교수에게 학교의 主權을 주고 있다.

한편 이 自治機構 자체가 권한에 있어서 限界를 가지고 있다. 學制, 授業制度, 試驗制度 등은 독일의 전체 대학에 적용되는 國法, 즉 「大學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될 수 있고, 그 법에 위배되는 변경사항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다. 그 밖에 교수와 기타 대학 직원의 人事에 있어서도 自治機構는 추천권만 가질 뿐 최종 결정권은 국가가 갖는다. 왜냐하면 대학이 國立이고 교수와 기타 대학 직원은 國家公務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수를 비롯한 대학 직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기구의 構成員의 대다수가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은 국가의 秩序를 지킬 의무를 갖는다. 이런 저런 것을 보면 自由베를린大學의 自治制度는 표면상의 革新性에 비해 실질적인 活動範圍가 지극히 협소하고, 또한 國家秩序를 저해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 \*